

check ME up!

2026년 6월 4주차

리서치본부 투자전략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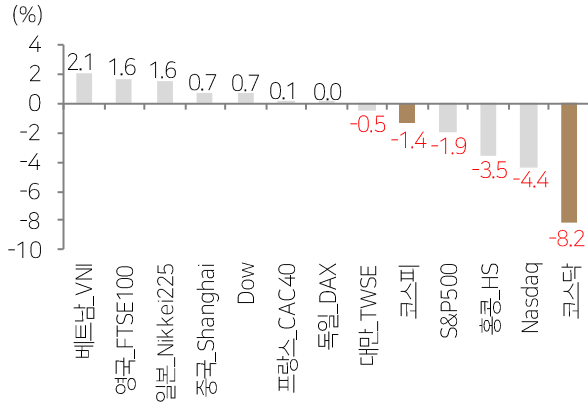
조병현 투자전략 | bhcho@daolfn.com



I . Weekly Review	2p
II . 경제지표 Preview	3p
III .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4p
IV . Key Chart & 핵심지표	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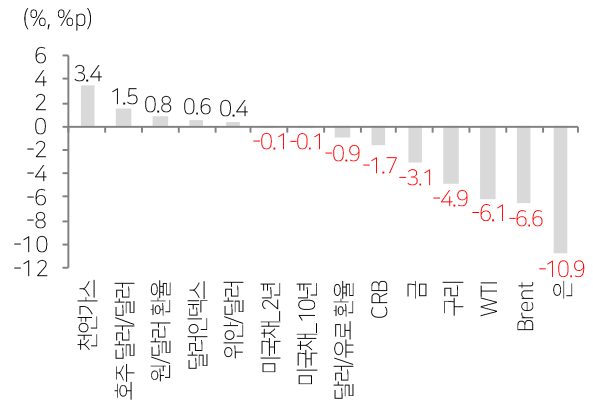
I. Weekly Review

글로벌 증시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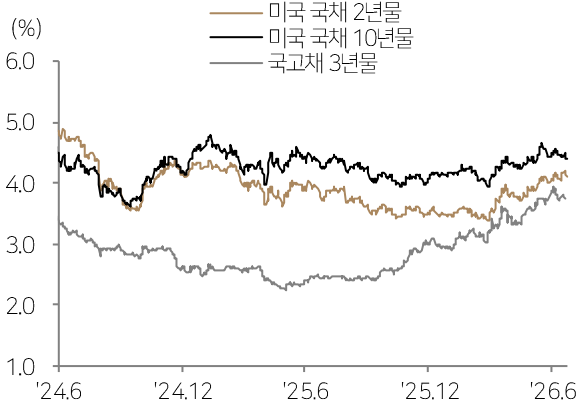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6/19일 대비 6/25일 종가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FICC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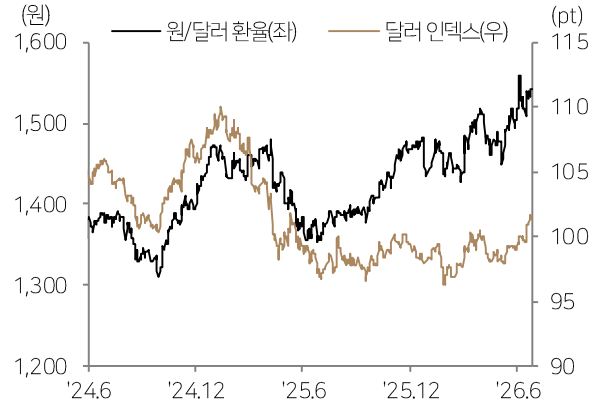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6/19일 대비 6/25일 종가 기준. 미국 국채는 %p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채권 수익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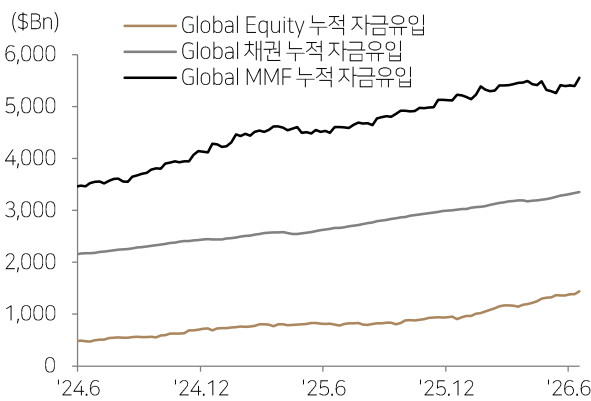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다올투자증권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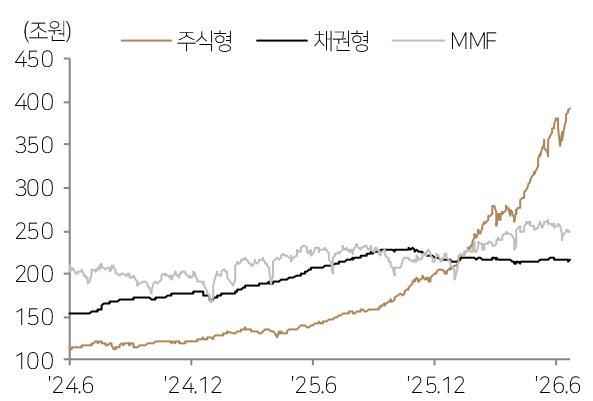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펀드 플로우



Source: Refinitiv, 다올투자증권

국내 자금동향



Source: Check Expert,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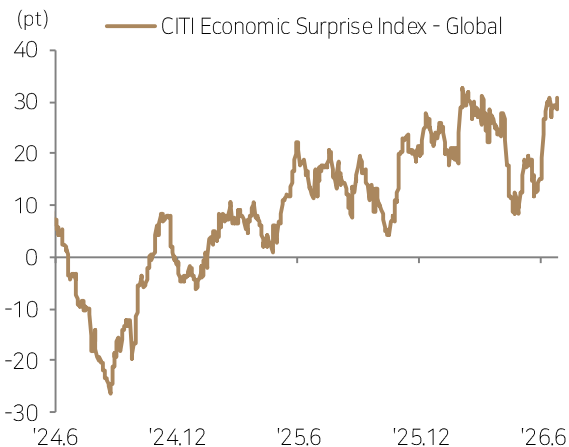
II. 경제지표 Preview

- 한국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면서 월 800억\$ 대에 안착 중. 최근 3개월 간 평균 +50%의 전년비 증가율을 기록하며 월 평균 869억\$를 기록하고 있음. 20일까지의 수출 호조 등을 감안하면, 6월 수출은 사상 최초로 월 900억\$ 대 진입 가능성이 높아 보임. 이 경우 상반기 수출액은 약 4,800억\$대가 기록될 수 있으며, 당사가 하반기 매크로 제시한 연 수출 0.95~1.05조\$ 추정치가 달성될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됨
- 미국 고용지표 발표 예정. 일단 유가가 안정화되는 흐름임에도 금리는 아직 높은 영역에서 등락하며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을 버리지 못하는 상황. 월드컵 이벤트 등 일회성 요인이 존재해 예상보다 견조한 고용이 한번 더 확인될 가능성도 남아 있음. 고용지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경우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자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

일자	국가/지역	일정 및 이벤트	단위	예상치	이전치
2026-06-30	한국	5월 광공업생산	%yoy	4.0	1.5
2026-06-30	일본	5월 실업률	%	-	2.5
2026-06-30	미국	6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Index	94.2	93.1
2026-06-30	미국	6월 JOLTS 구인 건수	천건	7,275	7,618
2026-07-01	한국	6월 수출/입	%yoy	60.7/24.5	53.4/20.7
2026-07-01	유로존	6월(잠정) 소비자물가지수	%yoy	3.1	3.2
2026-07-01	미국	6월 ADP 고용 변화	천건	110	122
2026-07-01	미국	6월 ISM 제조업	Index	53.6	54.0
2026-07-02	한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3.2	3.1
2026-07-02	유로존	5월 실업률	%	6.3	6.3
2026-07-02	미국	6월 실업률	%	4.3	4.3
2026-07-02	미국	6월 비농업고용 변동	천건	125	172
2026-07-02	미국	5월(최종) 내구재 수주	%mom	-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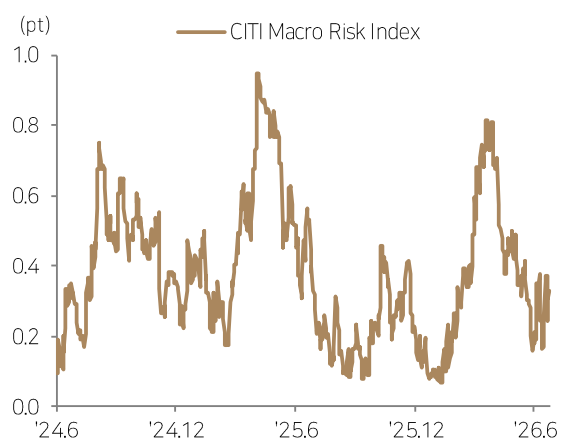
Note: 경제지표 발표일정은 한국시간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일자	국가/지역	중요도	일정 및 이벤트	내용
7/1 ~3	한국	중	코스닥 30주년 기념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7/1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개장 3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 코스닥 성장의 역사와 성과를 조명하고, 첨단 산업 시장으로의 도약을 제시할 예정 이와 함께 '코스닥 커넥트 2026'이 1일부터 3일까지 개최. 시장 체질 개선, 기술특례 상장제도, 코스닥 머니부브 등 시장 활성화 정책 방향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며, 코스닥·코넥스 상장사 100여 곳과 기관투자자·VC·증권업계가 한자리에 모이는 대형 IR 이벤트로 진행
7/1	한국	상	상장폐지 개혁 방안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위원회가 2월 12일 발표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이날부터 본격 시행. 코스피 시총 300억원·코스닥 200억원 미만 및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신규 퇴출 요건으로 추가하고, 공시 위반 벌점 기준 상향(15→10점)·자본잠식 기준도 강화. 이에 따라 거래소 시뮬레이션 기준 코스닥 상폐 대상 기업이 기존 50개사에서 최대 220개사로 급증 정부는 한국 증시의 신뢰 회복과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구조 전환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조건인 시장 질적 개선과도 연동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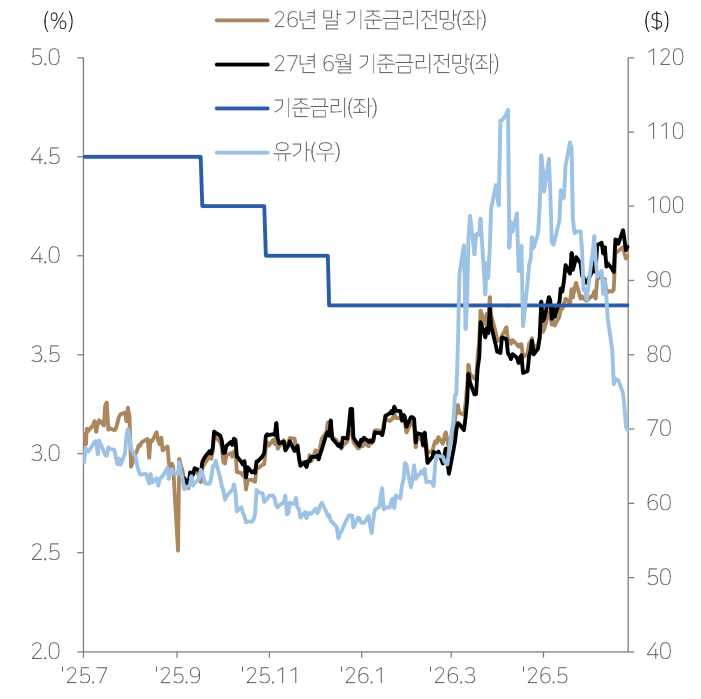
Note: 이벤트 발표일정은 한국 시간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일자	내용
금주 (06/19~06/25) 증시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SPI(-1.4%), KOSDAQ(-8.2%) 하락. KOSPI는 에너지(+4.7%), 반도체(+3.4%), 건강관리(+0.1%)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자동차(-15.3%), 조선(-13.2%), IT하드웨어(-12.8%) 업종 하락. 코스피는 미국 연내 금리인상 전망, 주요 연기금 리밸런싱, 레버리지 노출 확대에 따른 수급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약 -10% 급락. 주중 저가매수 유입되며 반등 시도했으나, 마이크로 실적 발표 앞두고 변동성 장세 지속. 이후 마이크로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반영하며 반도체 업황 투자심리 고조, 코스피 5% 이상 급등하며 8,900선 회복 마감 DOW(+0.7%) 상승, S&P500(-1.9%), NASDAQ(-4.4%) 하락. 주 초반 AI 수익성 우려와 스페이스X 회사채 발행 소식이 겹치며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심리 위축. 이어 미국 하반기 금리인상 전망과 아시아 증시 내 반도체주 급락이 맞물리며 나스닥 중심으로 낙폭 확대. 장 마감 이후 발표된 마이크로 실적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으나 빅테크 비용 부담 부각되며 기술주 약세, 3대 지수 혼조 마감
차주 (06/29~07/03) 증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시 한번 극단적인 변동성을 경험한 한 주. 기존 하반기 전망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6~7월은 추세적인 흐름보다 변동성이 수반될 가능성을 감안하고 대응해야 할 국면. 금리, 수급, 실적발표 등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가늠이 필요한 상황. 7월 초에도 경계 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2일 발표될 고용지표, 14/15일에 발표될 CPI와 PPI 등은 경계심의 영역에 돌 필요. 특히 CPI의 경우 유가의 빠른 하락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7월 말 FOMC에 대한 경계심을 형성시킬 수 있는 소재 결과적으로 하반기 추가 상승 기대가 남아 있다는 기존 전망을 유지하더라도 7월은 가파른 신고가 행진 지속과 같은 추세적인 움직임에 대한 기대보다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 바람직해 보임. 러프하게 보면 8,400pt 이하에서 적극적 비중 확대, 9,400pt선 이상에서 비중 조절 필요. 물론 대응의 중심은 실적 기대감이 견고히 자리잡고 있는 반도체가 중심이 될 것이며, 추가적으로 유통, 증권 등도 관심권에 돌 필요가 있다고 판단

Note: 수익률은 전주 금요일 증가 대비 금주 목요일 증가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IV. Key Chart & 핵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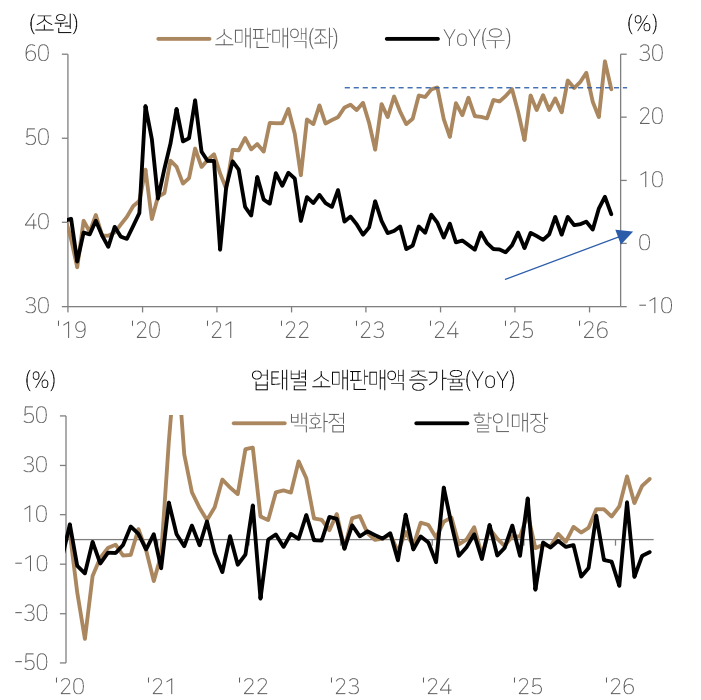
유가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은 잔존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미-이란 전쟁으로 급등한 유가가 금리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해 왔음. 그러나 최근 유가 급락에도 비대칭적 반응이 나타나며 금리는 고점 영역에서 머물고 있음
- 이유 중 한가지는 유가와 물가 간의 시차. 평균적으로 유가와 CPI 간에는 약 2개월 시차가 존재. 더불어 월 드컴 특수에 따른 서비스물가 상방 가능성도 있어, 6~7월 CPI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음. 이 같은 배경 하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가 잔존할 수 있음. 최근 해외 기관에서 연준의 3회 금리 인상 전망을 제시하며 불안감을 크게 증폭시키는 사례도 발생. 7/14일 발표될 CPI는 4.5% 이상 수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며, 이 같은 맥락에서 변동성을 자극할 여지가 있음
- 그러나 블룸버그가 선물 내재금리로 추정하는 기준금리 전망 상, 2026년 말과 2027년 6월 금리 전망은 모두 4% 수준. 즉,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지만, 내년까지 1회 가능성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 기초적 금리 인상 국면 진입 우려는 있지만, 유가가 70\$대에서 안정화 된다면 점차 우려는 희석될 수 있을 것

예상보다 강한 소비 회복세, 그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경향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주중 산업통상부의 소매판매 데이터가 발표. YoY 기준 +9.0% 상승으로 지난 달 +7.2% 보다 큰 폭 증가. 동 지표는 전체 소매업을 추적하는 통계청 소매판매와 달리 주요 유통업체 일부의 매출 동향을 집계하는 속보치의 성격. 한국은행 소비심리지표도 106.6pt로 전월 106.1pt에서 추가 상승
- 통계청 소매판매도 최근 인상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증가율의 상승 흐름도 흐름이지만 금액 자체가 기존 형성되어 있던 상단부에 안착하는 레벨업을 보여주고 있음. 수출 호조에서부터 파생된 낙수효과와 사상 최대치 관광객 유입 등이 영향을 미침
- 그런데 업태별 소매판매액을 보면 여기에도 양극화가 진행 중. 백화점 매출은 전년 비 +24.5%로 코로나 당시 기저에 의한 왜곡 구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래 최대 폭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할인매장의 경우 7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는 극심한 침체 상황. 내수 소비에 대한 관심도 유효할 수 있는 배경을 갖추고 있으나, 차별화의 이유도 분명한 상황

www.daolfn.com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본사업업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27층

DAOL 다올투자증권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